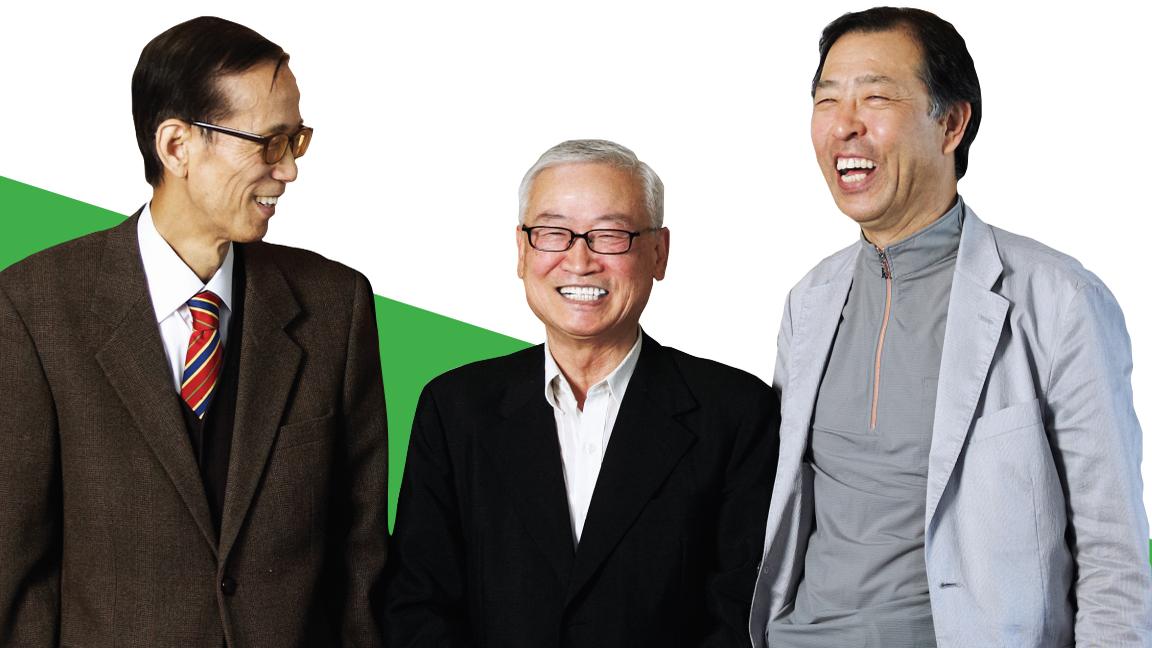


## 3無 대출, 다시 서게 하는 따뜻한 '신뢰'

###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다. 1백만원 한도 소액 대출이지만 빈곤 계층에게는 충분히 단비처럼 느껴질 터.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은 절망한 사람들이 작은 날갯짓이나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다. 이창호 상임대표는 “우리가 주는 것은 돈이 아닌 신뢰”라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자들이 느껴야 했던 거절감을 해소해 주고, 자립에 대한 의지의 씨앗을 심어주겠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사는사람들>. 금융 기관이지만 복지의 향기가 난다.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을 찾았다. 전양수 이사장, 배순호 부이사장, 이창호 상임대표가 기자 일행을 맞았다.



왼쪽부터 배순호 부이사장,  
전양수 이사장, 이창호 상임대표

최근 있었던 일이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점점 잊혀 가고 있는 비극적인 실화다.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있었다. 그들은 습하고 비좁은 지하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동반 자살했다. 씩씩하게 식어버린 세 모녀는 일주일 후에 발견되었다. 주검 옆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들이 죽음을 택한 원인은 무엇인가.

12년 전 남편이 방광암으로 사망한 뒤 세 모녀는 빚에 시달렸다.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식당일을 했지만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살길이 막막해진 세 모녀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실행에 옮겼다.

이 사건은 사회 안전망의 총체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곳곳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인생의 위태로운 절벽 위에서 생명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인간의 체온마저 상품으로 포장되어 팔려나가는 비정한 사회에서 이웃은 나와 상관없는 '남'일 뿐이다.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자랑하는 시대지만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비명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이웃의 탄식을 외면하는 시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기자에게도 충격이었다. 절망이었다. 그래서일까.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이야기는 황량한 사막에서 피어난 꽃처럼 느껴졌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민간 단체. 이자도 받지 않고, 담보와 신용 보증도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이곳은 어려운 사람들의 '금융 쉼터'가 아닐까.

<더불어사는사람들>은 2011년 여름에 설립되었다. 모델은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다. <그라민뱅크>는 1983년 법인으로 설립, 극빈자들에게 1백50달러 안팎의 소액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준 은행이다. 해마다 5백만 명의 회원들에게 대출, 75%의 회원들이 가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30년간 상환율은 98%에 이른다고 한다. 이창호 대표도 <더불어사는사람들>의 3년간의 상환율이 92%가 넘는다고 말했다.

“대출 건수는 3백 건 정도, 1억2천만원 정도 빌려줬고요. 자산은 4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돈을 갚고 있죠.”

〈더불어사는사람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웃들의 절박한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었다. 수백 건의 사연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이 대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대출 요청 중 가장 적은 금액은 얼마였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한숨을 지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

“서른다섯의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3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어디에서도 3만원을 빌릴 곳이 없어서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10만원을 빌려줬더니 3주 만에 갚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아버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야간 대리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이라도 지어서 잠시 동안 쉬게 하고 싶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30만원을 빌려줬죠. 그리고 어제, 그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가 자살했다고.”

**“우리는 큰 물고기만 보고 있어요.  
작은 물고기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은 액수의 돈이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 대표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자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소리 없이 웅크리고 있는 ‘세 모녀’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오갈 곳이 없어 찢질방을 전전하는 청년, 임신한 아내와 함께 거리로 내몰린 남편, 자녀 수학 여행비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이리 비틀거리며 휘청대던 몸을 결국 벼랑 끝으로 던져 버리고자 결심하는 사람들. 이들을 돌아보지 못함은 무엇 때문인가? 전양수 이사장의 말은 직언이 되어 기자의 가슴을 찢었다.

“우리가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큰 것은 잡히고, 작은 것은 그물 밖으로 빠지잖아요. 사실, 빠지는 작은 물고기가 더 많죠. 우리는 큰 물고기만 보고 있어요. 작은 물고기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은 액수의 돈이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10만원이 없어서 희망을 잃고 생을 놓는 사람이 있을까? 불행하게도 이런 의문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무심함이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했으며, 그 결과 이웃들의 절망을 외면하게 한 것은 아닐까.

### 그리스도의 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삶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창립 선언문은 이 기관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담보나 신용이 없어 소액조차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자립 지원, 생활안정 도모,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대출 업무뿐 아니라 취약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해주고, 연말이면 선물도 나눠주고 있다. 금융과 복지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배순호 부이사장은 ‘금융복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외로운 사람도 돌보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고 계시죠.”





농부가 땅에 보이는 관심이 부동산업자의 그것과 다르듯,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한다. 이 사회가 절망뿐이라고 단정 지으며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도 있다. 사회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던가. 배 부이사장은 기자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교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절실해요.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가 품어줘야 합니다. ‘자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해요.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더불어사는사람들>에게도 관심과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자금 조성은 후원과 출자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혜자들도 소액 후원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눔’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미약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더불어사는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리라.

이 땅의 송파구 ‘세 모녀’들은 지금도 울고 있다. 예수도 이들과 함께 울고 있다. 세 모녀의 울음이 웃음소리로 변화되는 날,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함께 보듬고 갈 때, 우리 사회의 절망은 저만치 물러갈 것이다. 인터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즈음, 이 대표의 핸드폰에서 벨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그가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마디.

“한 수혜자에게 살길이 열린 것 같은데요.”

